

‘광주문화운동 40년’ 발자취

광주·전남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한 문화예술계
광주민예총 내달 29일까지 매 주말 상설공연
극단 토박이·놀이패 신명·내뽕소리 등 출연

■ 광주문화운동의 역사

-1977년
‘광주YMCA 탈춤강습회’로 시작

-1979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결성

-1980년대
놀이패 ‘신명’·극단 ‘토박이’·목포 극단 ‘갯돌’ 창립
김준태 시인 ‘아 광주여’ 옛 광주일보에 게재

오월문학제·오월기획전 등 광주 정신 담기 지속

광주문화운동의 태동은 1977년 황석영·김남주 등이 참여한 ‘해남 추수감사제’와 같은 해 윤상원·조길에 등이 참가한 ‘광주 YMCA 탈춤강습회’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후 광주·전남 격동의 현대사에는 언제나 문화예술이 함께 했다. 1979년에는 홍성담과 최익균 작가 등이 광주자유미술인 협의회를 결성해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대상을 미술작품에 반영했고, 1980년대 놀이패 ‘신명’과 극단 ‘토박이’, 목포 극단 ‘갯돌’이 창립되면서 당대 사회상을 담은 극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문화운동은 1980년 5월 정점에 달했다. 김준태 시인은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전남매일신문(광주일보 전신)에 실어 군부 독재에 맞섰고 시민들은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광주정신을 굳게 세게 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오월문학제’, ‘오월기획전’ 등을 열며 광주의 오월을 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광주 영화제도 (사)광주영화영상인 연대를 중심으로 보존·전승해야 할 공동체의 가치를 영화를 통해 꾸준히 표현하고 있다.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문화예술에 담았던 ‘광주문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기념세미나가 오는 12월29일까지 펼쳐진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민예총)과 ‘문화운동4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함께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광주의 문화예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4~25일 옛 전남도청 민원실 2층(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서 펼쳐진 ‘문화운동 4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놀이패 신명의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29일까지 매 주말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상설공연이 열린다.

12월1일에는 극단 토박이가 오월의 광주를 주먹발 공동체 정신으로 엮어 낸 ‘오! 금남식당’을 무대에 올린다. 다음 날에는 정용주, 주하주 등 (사)오월음악의 가수들이 ‘민족, 민주, 노래 40년’을 내걸고 오월 노래를 부른다. 이어 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이 전라도의 멋과 흥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판국 ‘천명’을 선보인다(12월8일). 광주·전남작가회의는 9일 시 산문 한마당 ‘그리운 쪽으로 고개’를 열어 사·산문을 함께



‘광주문화운동 40년’을 맞아 지역 예술단체들이 오는 12월29일까지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지난 24일 진행된 놀이패 신명의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광주민예총 제공>

낭송한다.

15일에는 푸른솔합창단의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요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갈라쇼로 무대를 꾸민다. 들불야학의 동지였던 박기순 열사와 윤상원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다뤘다. 다음 날에는 전통음악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내뽕소리민족예술단의 ‘인심귀인심-악’ (人心歸人心-樂-)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마지막 상설공연이 열리는 22일에는 세

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춤극 ‘하늘 꽃’이 무대를 채우고, 다음날에는 (사)오월음악의 ‘민족, 민주, 노래 그리고...’가 진행된다.

문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29일 오후 3시 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주제공연 ‘혼신’으로 마무리한다. ‘함께 온 40년 함께 갈 60년’을 내건 이번 무대는 춤추는 나무, 극단 토박이, 놀이패 신명이 함께 만든다. 무료 관람. 문의 062-529-115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북서 떠내려 온 소는 남한 소야? 북한 소야?



ACC레퍼토리개발사업 선정작 무대...30일·내달 1일 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은 2016년부터 진행되었던 ACC레퍼토리개발사업의 최종 선정작인 연극 ‘소’를 30일(오후 7시30분)과 12월 1일(오후 3시) 예술극장 1에서 열린다.

ACC레퍼토리개발사업은 국내 최대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인 ACC 예술극장 극장1의 특화된 극장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

된 3개년 사업이다. ‘소’는 2016년 1차 서류 심사와 2017년 2차 쇼케이스 심사 및 3차 시범공연의 평가 과정을 거쳐 ACC레퍼토리작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겨울공주 평강이야기’, ‘신인류의 백분토론’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민준호 연출과 MBC ‘불어라 미풍아’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한갑수가 출연한다. 그 외에도 MBC ‘로드남버원’의 김동곤, ‘불멸의 이순신’의 허정규, ‘웃찾사’의 김늘메 배우를 비롯한 뛰어난 연기력과 코믹함을 갖춘 22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소’는 북한의 잃어버린 ‘소’ 한 마리를 찾으면서 벌어지는 팽팽한 남북관계

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우화극이다. 민통선 내 마을 ‘우도리’와 한강 속의 섬 ‘중도’를 배경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긴급 군사작전, 국제 사법 재판 등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속도감 있게 보여준다. 또한 관객들은 로드(양쪽 객석이 무대를 사이에 두고 길게 마주보게 되는 형태)형 무대를 통해 극 속의 인물로 참여하는 듯한 독특한 관객 체험을 하게 된다. 특히 ACC는 12월 1일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 100여명을 초청했으며 참가자들은 전당이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평화의 창’에도 참여한다. 전석 3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fluky flora’

독일 작가가 전하는 행운의 꽃

광주시립미술관 내달 2일까지 레지던시 올라 골로스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작가로 참여중인 올라 골로스 ‘fluky flora’전이 오는 12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 열린다.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교류작가인 올라 골로스는 이번 전시에서 행운을 가져온다는 5장의 라일락 꽃잎들을 통해 동유럽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치작품 등을 전시한다.

올해 독일과 처음 교류를 시작한 광주시립미술관은 한국 독일문화원과의 논의를 거쳐 올라 골로스를 참여작가로 선정했다. 그녀는 3개월간 광주에 머물며 작품 제작, 운세영·이정기 등 레지던시 작가와의 교류, 오픈 스튜디오 등을 진행

했다.

역시 공모 과정을 통해 뮌헨시 파견 작가로 선정돼 3개월간 뮌헨에 머물고 있는 김자이 작가도 28일까지 뮌헨 super+CONTERCOURT에서 레지던시 결과 개인전 ‘Skill of R&R’전을 열었다.

북경창작센터에 이어 2017년도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개관을 통해 활발한 국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중국, 대만, 뮌헨 등에 이어 내년에는 영국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며 지역 작가의 국제 무대 진출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062-613-7100. /김미은 기자 mekim@

시립미술관 겨울학기 개강

내달 4일 60여 강좌 운영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YMCA와 함께 미술관을 찾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센터 겨울학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미술을 기반으로 한 유아·어린이강좌, 청소년 토요일강좌, 성인예술 취미강좌, 직장인을 위한 화요 야간강좌, 희망 미술프로젝트 등은 다채로운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60여개로 구성됐다.

미술관 특화 강좌인 ‘이색 체험’은 6개 프로그램이다. ‘트리 허그(Tree Hug)’는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나무를 1분 이상 안아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천과 단추, 털실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사랑스런 나무에게 따뜻하고 멋진 옷을 덧입힌다.

‘전시도 보고 놀고 체험하기’는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을 만나 함께 작품 속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체험하며 작품을 재해석해보는 융·복합 전시 연계프로그램이다. 석성 김형수 선생의 작품과 함께하는 ‘우리 할머니’, 원로작가 박은용전과 함께하는 ‘어느 시골집의 한가한 날’ 등이 진행된다.

또 ‘스톱모션’ 프로그램과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 작가의 작품 감상 후 이를 활용해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다. 문의 062-613-7180-1. /김미은 기자 mekim@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주목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리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리**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파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 피 스파게티	3,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13,000 ~ 16,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22,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18,000원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